

광주상의, 중국 빅테크 기업과 경제 협력 물꼬 텃다

최대 산업도시 선전서 경제단체와 MOU AI 선도 바이두·전기차 1위 BYD 방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투자 유치 모색

광주상공회의소가 중국의 AI·전기차·로봇 빅테크 기업들과 경제협력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중국 사면·선전 산업시찰'을 진행하면서 현지 핵심 경제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계적인 AI·전기차·로봇 빅테크 기업들과 광주 투자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찰은 광주의 미래 전략 산업인 AI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경제계와 지방정부, 현지 기관이 유기적으로 힘을 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

간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다.

시찰단은 중국 최대 혁신 산업도시인 선전을 방문해 선전상인총회, 선전시 기업서비스그룹 유한회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선전상인총회 스텝 부회장 겸 사무총장과 선전기업서비스그룹 리허 부총경리가 참석해 양 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협약을 통해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대표산업 분야의 기업 간 기술 교류 ▲비즈니스 매칭 및 공동 세미나 개최 ▲상대 지역 진출 기업 지원 등을 협력 과제로 정했으며, 단순한 우호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별 구체적 협업 방안을 협약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시찰단은 자율주행과 AI 분야를 이끄는 바이두를 방문해 리우칭이 화남지역 총감독과 교류 간담회를 갖고, 자율주행 차량 시승을 통해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BYD 본사를 방문

한 자리에서는 덩하이오 한국지사장의 안내로 배터리 폭과 시열 참관과 최신 차량들에 대한 시운전 등이 이뤄졌다.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유비테크 로봇틱스에서는 장한천 해외총괄 CEO의 안내로 차세대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산업에 인사이트를 경험했으며, DJI 드론 플래그십 스토어도 방문해 글로벌 드론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두루 체험했다.

이번 방문의 실질적인 성과 뒤에는 든든한 민간 협력 체계가 있었다. 선전시투자촉진국 초청단 한일 수석대표, 위스제 선전시 주한국경제무역사무소 대표, 광주시 국제교류담당실 김혜문 주임 등이 시찰 전부터 현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기업 방문과 협약 체결 전 과정을 뒷받침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협약 기관들과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방문 기업들과의 투자 논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임재만 기자



정부, 차량용 요소·요소수 공공비축분 방출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이 비축한 차량용 요소·요소수를 이달 방출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화상 회의를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창고에 쌓인 요소수. /연합뉴스

광주 평동·임곡농협, NH농협손해보험 대상 수상

광주농협, 해아림 우수상 성과

지역 보험사업 경쟁력 입증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관내 농협들이 전국 단위 보험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입증했다.

농협광주본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광주 지역 농협들이 사무소와 개인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시상식에서 광주 관내 농협은 사무소 부문 3개소와 개인 부문 4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보험사업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사무소 부문 종합 대상에는 평동농협과 임곡농협이 선정되며 최고 영예를 안았고 광주농협은 해아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농업인 실익 증대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달성한 결과로 평가된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정책보험을 비롯해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전 손해보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축협과 임직원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단순한 실적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과 고객 중심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번 수상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지역 농협들이 현장 밀착형 영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는 보

험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 지역 농협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익주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사무소와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광주 지역 보험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업인 실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농협전남본부,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정기총회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 등 채택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20일 "지난 17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광주전남 선도조합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를 가

졌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공동마케팅확대 ▲상품 차별화 전략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외,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안건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안태호 기자

롯데백 광주점, 25·26일 '홍삼 1+1'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일 "지하 1층 천제명 매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단 이틀간 '1+1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과 공기가 맑은 소백산 기슭에서 재배한 인삼을 원료로 만든 홍삼농축액을 비롯해 홍삼녹용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한 개 가격으로 두 개 구매할 수 있어 실속 있는 선물 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부모님과 가족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홍삼을 보다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구매 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함께 진행해 혜택을 더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조선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3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2024년 신축한 담양상설시장과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에 200여분 이상의 상인들이 장터를 마련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1. 담양상설시장 - 매일(휴무: 2, 4째주 월요일 / 단, 장날일 경우 화요일)
2. 담양시장 - 매달 2일, 7일
3. 창평시장 - 매달 5일, 10일
4. 대전시장 - 매달 3일, 8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담양군> 광고문의 : 062)650-2099